

요셉의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

4/15 월요일

아침의 누림

창 37:7-8

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의 곡식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서고, 형들의 곡식 단들은 둘러서서 나의 곡식 단에게 절을 했어요.”

8 그러자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정말 우리 가운데 왕이라도 되겠다는 말이나?” 그리하여 형들은 그의 꿈과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히 6:1

1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빌 3:14-15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빌 2:15

15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롬 5:17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딤후 2:12a

12 우리가 견딘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계 5:10

10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성숙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 그의 기질이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이 빼앗는 사람을 의미하는 야곱에서 하나님을 위해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성숙한 왕자를 의미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성숙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방면은 ... 요셉의 전기에 온전히 묘사되어 있다. 요셉이 야곱의 한 방면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야곱과 분리된 사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열네 장에서 요셉의 삶의 기록이 야곱의 삶의 기록과 함께 묶여 있는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요셉은 성숙한 성도 곧 성숙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방면을 상징한다. 이러한 사람의 다스리는 방면은 틀림없이 온전할 것이다. 물론 우리 중 누구도 온전하지 않다. 그러나 왕으로서 다스리는 방면에서 우리는 온전하다. 우리가 영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온전하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0, 1489-149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체험들을 통과한 성숙한 성도에게는 ... 오직 그리스도로만 조성된 방면이 있다. 성숙한 성도의 이 방면은 그리스도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온전하다. 요셉은 성숙한 성도의 이러한 조성된 방면을 대표한다. 우리 각자 안에는 그리스도로 조성된 부분이 있다. 비록 여러분이 방금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한 부분 곧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이제 그리스도로 조성된 부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조성되시는 것의 시작이다.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과정은 그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즉 여러분 안에서 다스리는 방면이 산출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이 완전히 성숙에 이를 때 이 최상의 몫, 즉 이 최상의 방면을 소유할 것이다.

요셉은 야곱의 성숙한 생명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이 방면 곧 성숙한 성도들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는 온전하시다. 그러므로 이 방면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표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해와 달과 별들로서 하늘에 속한 위치를 지니지만, 곡식 단들로서 땅 위에 살고 있다(빌 3:20, 2:15). 그것은 곡식 단들이 밭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땅 위에 살고 있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 만일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을 매우 형편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매우 근시안적임을 뜻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성한 망원경을 사용하여 시간을 관통해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곡식 단들과 별들만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두더지들’이나 ‘전갈들’이 전혀 없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생명과 빛으로 충만하다. ... 오직 하나님만이 요셉에게 이러한 꿈들을 꾸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

성숙한 생명에는 다스리는 방면이 있다. 생명이 더 성숙할수록, 여러분이 성도들이나

교회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감소될 것이다. ...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눈에 모두 곡식 단들이다. 그들은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을 본 후에도, 나는 때때로 “그렇다. 나는 교회가 놀랍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할 때 ‘꼬리’가 드러났다. 심지어 이러한 ‘꼬리’ 때문에도 나는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 결국 나는 철저히 굴복되고 납득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 저는 저의 좁은 시야를 제쳐두고 신성한 망원경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탁월하고 훌륭하고 놀랍습니다.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을 누린다. 나에게 모든 형제자매들은 훌륭하다. 또한 나는 뒤로 물러난 이들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를 사랑한다. 형제자매들에 대해 이와 같이 더 말할수록 나는 더욱더 생명으로 충만된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을 체험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심판하는 이가 아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분은 성도들을 심판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전갈들’을 곡식 단들로, ‘두더지들’을 별들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그들에게 일하고 계신다. 결국 우리는 모두 곡식 단들과 별들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조망을 얻기 바란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0, 1493, 1502-150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0

4/16 화요일

아침의 누림

마 5:21-22

21 ‘살인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옛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22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면 공회 심판을 받게 되며, ‘모레’라고 하면 게헨나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창 39:21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 앞에 은총을 입게 하셨다.

행 26:19

19 아그립바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사 50:4-5

4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5 주 여호와와는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며 나는 거역하지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다.

엡 1:17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엡 3:3a

3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행 16:9-10

9 밤에 바울에게 이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그에게 간청하였다.

10 바울이 그 이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결론을 내리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가기를 힘썼다.

요셉은 매우 탁월하고 놀랍게 행동했는데, 그것은 그가 꿈에서 본 이상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 청년 요셉은 하늘에 속한 이상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 이상 속에서 요셉은 일어나서 있는 생명이 가득한 곡식 단이었고 다른 모든 별들이 섬기는 별이었다! ... 그가 꾸 두 가지 꿈의 이상은 그의 삶을 통제하였고 그의 행동을 지시하였다. 그는 똑바로 서 있는 생명이 가득한 곡식 단으로서 처신했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행동했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1, 151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 모두에게 분노가 있듯이 또한 우리에게도 정욕이 있다. 정욕이 없다면 여러분은 나무로 만든 의자나 돌임에 틀림없다. 모든 사람에게 정욕이 있다. 우리의 정욕을 통제하는 길은 이상이 우리를 억제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게 하는 것이다. ... 이상이 없으면 백성은 멸망한다.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욕에 빠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여기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도 곡식 단의 이상과 별의 이상이 있다.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 있었던 요셉의 생활은 마태복음 5 장부터 7 장까지에 묘사된 천국 생활이었다. 마태복음 5 장부터 7 장까지에 계시된 하늘에 속한 왕국의 헌법에 따르면, 우리의 분노는 억제되어야 하고 우리의 정욕은 정복되어야 한다(5:21-32). 만일 우리가 왕국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정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끝난 것이다. 우리는 왕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변가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분노를 터뜨리고 정욕에 빠진 사람들에게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왕국 백성은 모두 분노를 억제하고 정욕을 정복한다. 이것이 왕국 생활이다.

오늘날 왕국 생활 안에서 왕들은 훈련받고 있다. 왕국 생활 안에 있는 왕국 백성인 우리는 왕들이 되기 위해, 요셉들이 되기 위해,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이 되기 위해 훈련받고 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반드시 분노를 억제하고 정욕을 정복해야 한다. 요셉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 관한 얼마나 놀라운 그림인가! ...우리는 자신의 분노에 동의하고 자신의 정욕에 협력하는 대신에, 우리의 분노를 거절하고 우리의 정욕을 유죄판결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조성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는 왕들로서 다스리기 위해 준비되어 가고 있다.

요셉의 생활과 같은 생활에는 늘 주님의 임재가 있다(창 39:2-5, 21-23).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권위가 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주님의 권위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포로 상태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위가 그와 함께 있었다. ...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 당시 보디발은 파라오의 궁전에서 신하이며 호위 대장으로서 그곳의 일들을 관할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보디발은 요셉의 통제 아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 비록 감옥을 다스리는 간수장이 있었지만 결국 이 사람은 실질적인 통치자가 아니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죄수 요셉이 통치자가 되었다. 보디발의 집과 감옥 두 곳 모두에서 요셉은 왕이 되었다.

조성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마다 언제나 다스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오는 왕국 안에서 다스리는 부분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공동 왕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은 항상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생활이다. 이 우주 가운데 권위는 주님 자신이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권위, 즉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한, 비록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권위가 있다.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힌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결국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이 된 것을 보여 준다.(창세기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1, 1513-151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1

4/17 수요일

아침의 누림

창 40:8

8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그 꿈을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창 41:16

16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그것은 저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께 좋은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행 26:16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 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엡 3:7, 10

7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운행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0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후 2:14-16

14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15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16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약 1:12

12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험을 거쳐 인정받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 그가 감금되어 있던 곳에 술 맡은 시종과 떡 맡은 시종이 더해졌다. ... 그들은 그들 자신의 꿈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두 동료 죄수의 꿈을 해몽할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다(창 40:8-19). 만일 내가 요셉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는 나의 꿈을 해몽했지만 그 해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설령 내가 그들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다 해도, 나는

그들에게 말해 줄 자신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해몽이 이루어질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자신의 꿈에 대한 해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동료 죄수들에게 “해몽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그 꿈을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창 40:8)라고 말할 담대함이 있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나는 두 가지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꿈들에 대한 해몽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 꿈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해몽을 믿습니다. 내게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꿈을 해몽할 믿음이 있습니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2, 1524-152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이상이 성취된 것에 따라서 말하기보다, 그 이상 자체에 따라서 더 많이 말해야 한다. 비록 우리의 이상이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이상이 성취될 때가 올 것이다. 요셉의 꿈은 결국 요셉이 술 맡은 시종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성취되었다.

술 맡은 시종과 떡 맡은 시종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저 시간문제에 불과 했다. 요셉의 동료 죄수들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확증을 얻고 강화되었다.

요셉은 말함으로써 감옥에서 풀려났을 뿐 아니라 보좌로 인도되었다. 요셉은 말함으로써 보좌에 올랐다. 그는 파라오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권위를 얻었다(창 41:25-44). 만일 내가 파라오를 위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었다면, 파라오가 나의 꿈에 관해 질문할까 봐 두려워서 매우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 그러나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고 말하는 일에서 담대했고, 말함으로써 권위를 얻었다. ... 여러분이 자신에게 자격이 없고 자신이 지하 감옥 안에 있다고 말할수록,

여러분은 더 오랫동안 감옥 안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많이 말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해방될 것이다.

말함으로써 요셉은 권위를 얻었다. 말함으로써 그는 보좌에 올랐을 뿐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권위를 얻었다. 여러분은 더 많이 말할수록, 더 많은 권위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은 말함으로써 감옥에서 풀려나고 권위를 얻는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생명 아니면 죽음을 가져갈 것이다. 요셉은 술 맡은 시종에게 생명을 가져다주었다. 우리는 술 맡은 시종의 꿈에서 생명이 총만한 포도나무를 본다. 그러나 요셉은 떡 맡은 시종에게 죽음을 가져다주었다. 왜냐하면 떡 맡은 시종은 새들에게 먹혀 버렸기 때문이다. 요셉이 되는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생명을 얻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명이 총만한 포도나무로 예표되신 그리스도께로 가거나, 아니면 공중의 새들로 상징된 사탄에게 먹혀 버릴 것이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 40 장을 읽으면서 ... 왜 그토록 오랫동안 주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남겨 두셨는지 질문할지도 모른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지하 감옥 안으로 넣으실 것이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장로들과 형제자매들을 비롯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단지 여러분을 지하 감옥 안으로 넣는 데 일조할 뿐이다. 우리는 이에 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지하 감옥이 없으면 우리는 보좌에 오를 수 없다. 우리는 지하 감옥에서 중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졸업하여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지하 감옥에 머물러야 한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2, 1526, 1529-1530 쪽, 메시지 114, 1542-1543, 1547-154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2, 114; 워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하), 개정판, 50 장

4/18 목요일

아침의 누림

창 49:22

22 요셉은 열매 많은 큰 가지 샘가에 있는 열매 많은 큰 가지 그의 가지들이 담을 넘는다.

창 41:42

42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 주며,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

요 15:1, 5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전 1:30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시 36:9

9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빌 1:20-21a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열매 많은 큰 가지인 요셉은 많은 가지들(요 15:1, 5)인 믿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뻗어 나가는 가지이신(사 11:1)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창세기 49 장 22 절에서 샘은 열매 맺음의 근원(시 36:9, 렘 2:13)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가지들이 담을 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지들인 믿는 이들이 모든 제한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확장하며,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확대하는 것을 상징한다(빌 1:20, 4:22, 몬 10).(창 49:22 각주 1)

요셉은 승천 안에서 영광(히 2:9)과 선물(시 68:18, 행 2:33)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반지와 옷과 금사슬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받으신 선물들을 묘사하며, 그리스도는 이러한 선물들을 교회에게 전달해 주셨다. 인장 반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고 그들 위에 도장 찍으시는 성령을 상징한다(행 2:33, 엡 1:13, 4:30, 비교 눅 15:22). 옷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의 객관적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고전 1:30, 비교 시 45:9, 13, 눅 15:22), 또한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도록 우리가 살아 낸 주관적인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시 45:14 과 각주 1, 계 19:7-9 와 8 절 각주 2). 금사슬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그들의 복종으로 표현되는 성령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비교 행 5:32).(창 41:42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영적 체험의 순서에 따르면, 우리는 먼저 구원을 위하여 도장 찍으시는 영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을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살기

시작한다(갈 2:20, 빌 1:20-21 상).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목에 금사슬이 걸려서 의지가 성령께 굴복되어야만 한다.(창 41:42 각주 1)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출 32:9). ... 금사슬을 건 목은 하나님께 정복되고 굴복되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된 의지를 상징한다. ... 우리의 목이 정복되고 굴복될 때 금사슬이 걸린다. ... 사도행전 5 장 32 절은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영은 구원에 대한 선물일 뿐 아니라 순종에 대한 선물이기도 하다.

창세기 41 장 45 절에서 우리는 요셉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본다. 요셉의 아내는 이교도인 이집트 사람이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거절당하는 동안 그녀를 얻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시는 동안 이방인들을 그분의 아내로 맞이하신 것을 묘사하는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이방인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으셨다.

아스낫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절당하시는 동안 이방 세계에서 얻으신 교회를 묘사한다.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시는 동안, 그분은 이방 세계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르셨고 이방 세계에서 교회를 얻으셨다. 요셉은 그의 아내 아스낫에게서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게 하다'라는 뜻이다.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해 주셨구나."(창 41:51)라고 말했다. 이것은 므낫세가 태어남으로써 요셉이 그의 모든 고난들을 잊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이것은 교회가 많은 자녀를 산출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분의 고난들을 잊으셨다고 선포하실 것임을 계시한다.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는데, 그 이름은 '열매가 배나 많은'이라는 뜻이다(창 41:52). 에브라임이 태어났을 때, 요셉은 "내가 고난당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내가 자녀를 (배나) 많이 낳도록 해주셨구나."라고 말했다. ...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산출할 때, 그리스도는 기뻐하시면서 "더 이상 고난은 없다. 이 모든 열매를 보아라!" 라고 선포하실 것이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3, 1537, 1540-154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3

4/19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5:17, 21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롬 14:17

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요 5:19

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요 7:16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마 8:9-10

9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라고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여라.’라고 하면 합니다.”

10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감탄하셨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마 16:24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롬 12:10

10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분명 매우 기뻐했을 것이다. 창세기 42 장은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 준다. 요셉이 꿈을 꿀 때 그의 나이는 십칠 세였다. 삼십 세 때 그는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위치에 올랐다. 그리고 약 구 년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요셉에게 온 것은 아마 요셉이 삼십구 세 때였을 것이다. 따라서 꿈을 꾸지 약 이십이 년 후에 요셉은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전에 요셉은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혀야 했다. 그는

지하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낸 후에야 마침내 놓여질 때가 왔고 보좌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요셉은 자신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 요셉은 긴 시험의 시기를 통과해야 했다. 그의 인내가 곧 바닥날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은 자신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이십이 년 동안 기다릴 수 있는가? 요셉은 그렇게 했다.

그 후 어느 날 그의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절을 했다. 만일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흥분을 억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절제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평온함을 유지하며 흥분을 자제했다. 요셉은 그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6, 1563-156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셉의 이야기에 나타난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며, 타락한 생명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타고난 선한 생명도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부활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다. 비록 요셉은 흥분할 만한 상황에 있었지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생명이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생명을 볼 뿐 아니라 항상 자신을 통제 아래 두는 생활 방식을 본다. … 그는 인간적인 느낌과 감정이 가득했지만,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느낌을 그 영의 통치 아래 두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에게서 성숙한 생명을 볼 뿐 아니라, 다스리는 생명과 이 다스리는 생명의 생활 방식을 본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와 같은 생명이 필요하며 성숙한 사람의 다스리는 방면인 그러한 생활 방식이 필요하다. 이 생명은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이 생명은 흥분된 와중에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자신을 통제하며, 자신의 영광을 감춘다.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제한 아래 있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이 그를 통해 올 수 있었다. 왕국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한 아래 살고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다. … 요셉에게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위와 힘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 가장 강한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할 능력과 지위와 기회가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 요셉은 보좌에 오른 후에도 비록 아버지와 십삼 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홀로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형제들이 처음 그에게 왔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 이것은 요셉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힘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 준다. 요셉이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손 아래, 곧 하나님의 제한 아래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집트를 다스리는 처음 구 년 동안 요셉은 틀림없이 거둬들여 주님을 접촉했을 것이다. … 요셉은 심지어 아버지가 이집트에 있는 자신에게 올 때가 이르렀을 때 조차 아버지를 보려고 도중에 나가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그가 주님의 제한 아래 머무른 결과라고 믿는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 부인이고 참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6, 1565 쪽, 메시지 119, 1607-160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5-119

4/20 토요일

아침의 누림**창 50:20**

20 형님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시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롬 8:28-29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계 3:18

18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계 21:5

5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들은 믿을 만하고 참되다.”

잠 4:18

18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히 11:21

21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해 주었으며, 자기 지팡이를 의지한 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롬 12:1-2

1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롬 8:28). ...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의 깊이를 꿰뚫어 본다면, 여러분은 결코 보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항상 기꺼이 용서하려고 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은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선을 이룹니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9, 160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셉은 또한 그의 형들을 부양하고 그들을 위로했다(창 50:15-21).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또한 아버지의 죽음 후에 요셉이

보복하려고 어떤 일을 할까 봐 두려워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울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에게 악으로 되갚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이루시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650:19-20) 요셉은 또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부양하기로 약속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말하였다(50:21).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 같다. "여러분의 계획은 악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저를 여기에 보내시어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제게 한 일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왔습니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이 필요하다. 다른 이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온 일로 여겨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온 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상처들은 지나갈 것이다.

요셉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로하였다.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국 안에서 기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이 왕국 안의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요셉의 탁월한 영으로 인하여 그들은 왕국 안에서 함께 좋은 시절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악으로 되갚기 원했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왕국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최고의 몫에 참여하려면 사람들은 요셉에게 최후의 대가 즉 자기 자신을 대가로 지불해야 했다. 여러분이 첫째가는 대가를 지불할 때 첫째가는 몫을, 둘째가는 대가를 지불할 때 둘째가는 몫을, 셋째 가는 대가를 지불할 때 셋째 가는 몫을 누린다. 하지만 최고의 대가를 지불할 때, 여러분은 최상의 몫을 누린다. 결국 우리는 만족을 위한 양식을 얻을 뿐 아니라 재생산을 위한 씨앗도 얻는다. 양식과 씨앗을 모두 얻으려면 우리는 온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넘겨주기 전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넘겨주어야 한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준 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돈과 가축과 땅과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풍성한 공급을 누릴 뿐이다.” 남아 있는 것은 누림뿐이다. 이 누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한 지주와 한 은행가 아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땅은 그리스도께 속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과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넘겨드릴 것이다. 우리는 주인들이 아니라 누리는 이들이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모든 것은 한 주인의 손 아래 있었다. 요셉은 고르게 분배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이집트 경계 끝에서 끝까지 여러 성에 이주시켰다’(창 47:21).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 영적인 공급에 있어서 오늘날도 동일하다. 그리스도께 풍성이 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이러한 풍성의 양은 우리가 무엇을 대가로 지불하는가에 달려 있다.(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0, 1621-1622, 1619-162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0, 104-105, 108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0

찬송: 943 (英) 왕국의 표준 엄격해 (中:747)

- 1 왕국의 표준- 엄격-해 율법보다 더 뛰어나 하나님 요구-보다-도 더 높은 요구- 없으리.
- 2 천국이 가까-웠-니 먼저 다 회개하여라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서.
- 3 천국에 들어-가려-면 뛰어난 의를 가지라 율법으로는- 못 이-뤄 생명으로만- 가능해.
- 4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을 준행해 자신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 원함- 따르라.
- 5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겠네 겸손하고 단-순하-며 자만함 없어-야 하리.
- 6 하나님처럼- 완전-함 천국은 요구한다네 이 표준에 부-합되-야 왕국의 실재- 실천돼.
- 7 하나님 본성-과 같-은 하나님 통치인 왕국 하나님 생명-으로-야 이 왕국 들어-가겠네.
- 8 하늘에 속한- 통치-와 하늘에 속한 상태에 하늘에 속한- 생명-만 참여할 수가- 있겠네.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3:13-19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14-15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The Satan-destroying Death
Scripture: Heb. 2:14-15
Assigned Reading: *Christ and the Cross*, ch. 13
Supplemental Reading: *The Move of God in Man*, chs. 1-2

4/21 주일

아침의 누림

창 49:25-26

25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며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분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되 위에 있는 하늘의 복, 땅 밑에 있는 심연의 복, 젖가슴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다.

26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커서 영원한 언덕들의 가장 먼 경계에게까지 이르렀다.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있고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별된 이의 정수리 위에 있을 것이다.

창 47:7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자,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였다.

창 48:15-16

15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까지 일생 동안 저를 목양하신 하나님, 16 온갖 악에서 저를 구속하신 천사시여,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저의 이름과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고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는 무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살전 5:16-18

- 16 항상 기뻐하십시오.
-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